

기록 전문직 양성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a New Direction for Archival Education

정연경(Yeon-Kyoung Chung)*

목 차

- | | |
|------------------------|--------------------------|
| 1. 서론 | 3.2 국내 양성 교육과정 |
| 1.1 연구의 목적 | 4. 국외 기록 전문직 양성 사례 |
| 1.2 연구의 방법 | 4.1 미국 |
| 1.3 선행 연구 | 4.2 캐나다 |
| 2. 기록 전문직 양성 교육의 지식 범주 | 4.3 영국 |
| 2.1 SAA의 지식 범주 | 4.4 호주 |
| 2.2 ACA의 지식 범주 | 5. 기록 전문직 양성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 |
| 3. 국내 기록 전문직 양성 현황 | 6. 결론 |
| 3.1 국내 양성 프로그램 | |

<초 록>

본 연구는 기록 전문직의 지식 범주에 관해 외국의 지침서를 먼저 살펴보고 이와 함께 국내 기록 전문직 양성 프로그램과 교과과정을 비교해보았다. 그리고 국외 기록 전문직의 양성 사례를 4개국을 중심으로 짚어본 후, 기록 전문직 양성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록 전문직 양성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으로 전문성을 개발해 줄 수 있는 대학원 교육의 강화, 다양한 학문의 참여와 시도를 통한 다학문적 교과목의 개발 및 확대, 기록관리 지식이 균형 있게 짜인 교과과정 편성, 이수 학점의 상향 조정, 기록관리학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 교원의 충원, 실무와 연구 지식범주의 교과목 강화, 기록관리학 표준교과과정의 개발과 기록 전문직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기관, 기록관리 전문 학·협회, 기록 관련 기관 간의 파트너십 형성과 적극적인 활동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기록전문직, 기록관리교육, 기록관리 지식범주, 기록관리 교육과정, 기록관리 교육프로그램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core domains of archival knowledge based upon two guidelines from foreign countries, and to analyze current status of archival education programs and curriculum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Based upon the analysis, several new directions for archival education in Korea are suggested as follows: strengthening the archival graduate programs for archival profession, developing and expanding interdisciplinary courses based upon participation and trial of various related disciplines, increment of graduate credits, hiring of the Ph. D. full-time faculty in archival studies, strengthening internship and research courses, developing a standard curriculum for archival education, and active participations and partnerships among archival graduate schools, professional archival societies, and archival related institutions.

Keywords: archival profession, archivists, archival education, archival knowledge, archival curriculum, archival programs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ykchung@ewha.ac.kr)

■ 접수일자 2010년 5월 26일 ■ 수정일자 2010년 6월 12일 ■ 게재확정일자 2010년 6월 21일

1. 서론

1999년에 목포대에 처음으로 기록관리학 협동과정인 생김 이래로 현재 20여개가 넘는 교육기관들이 기록 전문직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충분하지 못했던 준비 과정과 부족했던 기록관리 교육과정 전문가, 기록관리학 교육 지침서의 부재로 인한 표준 교육과정의 미비 등의 문제점은 그 동안 많은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부분이다. 이제 지난 10년 간 기록 관리 교육의 발전을 짚어보고 냉정한 평가를 통해 기록 전문직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1.1 연구의 목적

기록 전문직을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록 관리 교육의 교과과정이 제대로 설계되고 그 교과과정이 전임교원에 의해 교육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문 학·협회에서 나온 기록관리학 교육 지침서가 없어서 여전히 외국의 교육 지침서를 비교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요소를 찾아보고 이러한 요소가 국내 교육과정에 반영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외국의 기록관리교육 지침서의 각 요소를 살펴보고, 국내의 기록 전문직 양성 프로그램에 그러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으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 다루고자 한다. 그래서 외국 기록관리교육 지침서의 각 요소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과 특성화된 부분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특성과 교과과정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하여 국내 기록관리 교육의 표준 지침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기록관리교육 지침서를 분석하고 각 요소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과정의 교과목에 해당 요소를 연결함으로써 기록관리교육의 모든 지식 요소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외 기록관리교육과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였다. 둘째, 미국에서 나온 기록관리학 교육 지침서인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SAA)의 *Guidelines for a Graduate Program in Archival Studies*(2002)와 Academy of Certified Archivists(ACA)의 *Handbook for Archival Certification*(2009)의 기록관리 지식 범주를 분석하였다. 셋째, 현재 웹에서 제공되고 있는 국내 기록 전문직 양성 프로그램의 15개 교과과정을 수집하여 외국의 기록관리 지식 범주에 따라 구분하고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각 범주별로 국내 교과과정에서 강화해야 할 부분과 특성화된 부분을 살펴보았다. 넷째, 외국의 기록 전문직 양성 프로그램을 각 나라별로 살펴보고 특징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이상을 종합하여 국내 기록 전문직 양성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1.3 선행 연구

기록 전문직 양성 교육에 관한 국내 선행 연

구로는 한복희(1994)를 시작으로 김상호(1998)가 기록 관리의 전문 교육 방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다. 이후 이상민(1998)이 1994년에 나온 SAA 지침서를 상세히 분석하고 중국, 홍콩, 일본의 양성 과정에 대한 소개와 자격증 제도를 분석하였다. 김기석(1999)과 김태수(1999)는 개설 교과과정 제안을, 이승휘(2000)는 중국에서의 기록 관리직 양성과정을, 김영애(2000)는 독일의 양성과정을, 최정태(2000)는 국내 교육과정안을, 김용원(2001)은 일본의 양성과정을, 김정하(2001)는 이탈리아의 교육과정을 소개하였다. 최정태와 윤송원(2001)은 주요국의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기록관리학 지식 영역과 교과목을 설정하였다. 정연경(2002a, b)은 캐나다와 미국의 문헌정보학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기록관리 특성화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정연경(2003a, b)은 북미와 한국의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비교 연구하였다. 김익한(2003)은 SAA의 교육지침서를 1994년과 2002년을 비교하여 기록학의 정체성 확대를 가장 큰 변화로 보고 체계적인 교육, 석사 논문의 완성과 철저한 심사가 전문가 양성 제도의 질을 담보하는 기본요소라고 하였다. 정연경(2005)은 한국과 미국의 기록관리학 교과과정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학은 지식 범주별 공통 필수 교과목이나 선수과목의 설정, 디지털 환경 안에서의 레코드 관리, 비판적 사고 능력 개발, 체계적인 실습과 인턴십의 제공, 세미나와 특강 그리고 논문 작성을 통한 연구 능력의 강화를 제공하는 교과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순희(2009)는 미국과 한국의 대학원 기록관리 교육과정에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요소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기록학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물론 실제적인 업무 능력 배양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외에서는 Eastwood(1983)가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 처음 기록학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기록학 개론과 고급 기록학, 레코드 경영, 자동화, 보존, 실습과 논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Cox(1988)는 대학원 수준의 기록관리학 교육 프로그램과 SAA의 새로운 지침서와 자격증에 관해 논하면서 기록관리 전문직과 관련 교육의 미래를 매우 희망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Ericson(1993)은 SAA Education Directory, 구인 광고, ACA 시험 결과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의 기록관리 대학원 교육이 크게 성장하지 않았고 개선 사항으로 핵심 기록관리지식, 전임 기록관리 교육자의 양성 및 배치, 교육 프로그램의 검토와 개발을 제시하였다. Schaeffer(1994)는 기록관리가 전문직 개발 과정이며 기록학 교육이 레코드와 사회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기록적 사고로 개발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Pemberton과 Nugent(1995)는 문헌정보학과 기록학, 레코드 관리에서 정보 순환, 저장, 검색, 표현, 보존, 역할, 윤리 등을 공유하므로 이를 하나의 통합 교과과정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Klumpenhouwer(1995)는 실습과 논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Craig(1996)는 현장과의 공동 연구 활성화, 기록물 연구방법의 다양화와 기술 및 연구의 증진을 강조하였다. Couture(1996)는 실무의 표준화, 정보 기술의 적용, 평가 등 변화하는 시대를 수용할 수 있는 기록관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Eastwood(2000)는 독립된 분야로 학문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탄탄한 연구 토대를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논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Gilliland-Swetland(2000)와 Wosh(2000)도 연구 능력의 습득과 연구 수행을 강조하였고 특히 연구의 통합과 복합 연구주제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Jimerson(2001)은 기록전문가 양성 교육이 다학문적 교육으로 기록관리의 핵심 지식을 강조하고 실무 경험과 연구를 포괄하는 대학원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Cox, Yakel과 Wallace(2001)는 북미 대학원의 기록학 교육 프로그램에서 전임과 정년 교수의 증가, 폭넓은 교과목 개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록학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록전문협회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하였다. Nesmith(2007)는 University of Manitoba의 기록관리학 석사과정을 소개하면서 영국과 아일랜드의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새로운 방향에 관해 논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기록관리교육에 있어서 교과과정 개발과 지식 범주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다루어졌고 국외에서는 다학문적인 기록관리학의 통합 교과과정 개발, 실습과 연구에 관한 강조, 전임 교원 충원의 문제와 새로운 기록관리교육 방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기록 전문직 양성 교육의 지식 범주

기록 전문직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록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에 관해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록관리학이라는 학문의 구성요소와 함께 기록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과 실무 지식이 무엇인지

를 알고 이를 교과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 범주를 제시하고 있는 기록관리학의 교육지침서로서 SAA의 *Guidelines for a Graduate Programs in Archival Studies*(2002)와 ACA의 *Handbook for Archival Certification*(2009)에 나타난 내용을 검토하였다.

2.1 SAA의 지식 범주

1936년에 창립된 SAA는 북미 기록관리 전문협회로 1977년부터 기록관리학 교육 지침서를 계속해서 개정해 오고 있다. 2002년에 나온 지침서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그 기본적인 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AA의 교육지침서에서 기록관리의 지식 범주는 크게 핵심 기록관리지식(core archival knowledge)과 학제적 지식(interdisciplinary knowledge)으로 구분하였다. 핵심 기록관리지식은 기록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으로, 이를 다시 기록관리 기능 지식(knowledge of archival function), 전문적 지식(knowledge of the profession), 상황적 지식(contextual knowledge)으로 세분하였다. 학제적 지식은 기록관리 업무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관련 지식으로 대학원 프로그램에서는 핵심 기록관리지식에서 최소한 18학점을 택하고 나머지 학점은 각 대학원의 규정과 학생의 관심 영역에 따라 학제적 지식에서 학점을 따도록 하였다. 또한 실습이나 인턴십이 병행되어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고 배울 수 있게 하고 연구나 프로젝트, 세미나 같은

과목을 통해 연구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2.2 ACA의 지식 범주

1989년에 시작한 ACA는 독립된 비영리 인증기관으로서 기록 전문직의 기록 업무 기준을 증진시키고 기록전문가의 자격증 시험을 통해 기록 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필수 지식과 능력을 정의하였다. *The 2009 Role Delineation Statement Revision*에서는 기록관리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술이 정의되어 있으며 이는 자격증 시험 준비의 바탕을 제공하고 기록 관리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지식 범주를 제공하고 있다. ACA 위원회는 2008년 3월에 이러한 내용을 최소한 5년에 한 번씩 개정해야만 한다고 하였고, 2009년에 승인된 성명서는 2010년 8월에 시행될 기록전문가 자격증 시험의 바탕이 된다.

Handbook for Archival Certification(2009)은 13개의 필수적인 일반 지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록물과 기록물 관리의 특성 및 발전에 있어서 사회·문화·경제·정치·기술 요소의 영향, 둘째, 기록의 개념, 용어, 원칙, 실무, 방법론에 대한 기원, 발달과 정의, 셋째, 사회에서 기록관과 기록관리업무의 발달, 넷째, 기관이나 단체의 기록 관리와 개인 기록 관리, 필사본 관리의 유사성과 차별성, 다섯째, 기록물의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특성과 이에 따른 기록물의 평가, 수집, 보존과 이용, 여섯째, 다양한 매체의 기록물에 적합한 기록관리 이론, 방법론 및 실무, 일곱째, 기록관리 업무 표준과 최상의 실무 지식에 타당한 논리

와 그 적용 지식, 여덟째, 기록물의 생명주기와 기록관리 연속성 개념, 아홉째, 기록 전문직 관련 정책과 실무와 적용의 관계, 열 번째, 핵심기록관리기능(선정, 평가, 수집, 정리와 기술, 정보서비스와 접근, 홍보)의 상호관계와 기록물 관리에 끼친 영향, 열한 번째, 서로 다른 기록관리업무 환경과 특수한 기관 내에서 기록관리업무의 위치, 열두 번째, 기록관리학과 관련 학문분야(문헌정보학, 레코드 관리, 박물관학, 역사적 보존, 사료편찬, 구술사)의 이론, 방법론, 실무에서의 유관성과 차별성, 상호교류 가능성, 열세 번째가 컴퓨터 기술이 가져온 기록관리 이론, 방법론, 실무의 변화이다.

그 다음으로는 기록관리학의 핵심 업무를 7개의 영역, 즉 기록물의 선정, 평가, 수집, 기록물 정리와 기술, 기록물 서비스와 접근, 기록물의 보존과 보호, 기록관 업무의 홍보, 기록관 프로그램의 운영, 기록 전문직의 전문적, 윤리적, 법적 책임으로 나누었다. 7개의 영역은 각 영역 안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임무를 정리해주는 업무(task) 진술과 이러한 각각의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기록전문가가 알아야 할 지식의 진술(knowledge statements)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7개의 핵심 업무와 13개의 필수 일반 지식으로 구성된 ACA의 지식 범주는 SAA보다 훨씬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이 SAA에서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두 지침서 모두 연구 능력과 비판적 사고에 대해 특히 강조하였다. 이는 전문직의 자질로서 연구가 기록관리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요소로 끊임없는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두 기관의 지식 범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SAA(2002)와 ACA(2009)의 지식 범주

SAA(2002)의 지식 범주		ACA(2009)의 지식 범주	
핵심 기록관리 지식	기록물/레코드 특성, 기록관리의 기능과 이론	일반적 지식	*K-2 기록의 개념, 용어, 원칙, 실무, 방법론에 대한 기원, 발달과 정의
			*K-4 기관이나 단체의 기록 관리와 개인 기록관리, 필사본 관리의 유사성과 차별성
			*K-6 다양한 매체의 기록물에 적합한 기록관리 이론, 방법론 및 실무
			*K-8 기록물의 생명주기와 기록관리 연속성 개념
	기록관리 업무에 필요한 기술/방법	핵심 업무	①기록물선별
			②기록물정리와기술
			③기록물공개열람서비스
			④기록물보존
			⑤기록물홍보
			⑥기록물운영
실습을 통한 이론과 방법의 적용	일반적 지식	*K-7 기록관리 업무 표준과 최상의 실무 지식에 타당한 논리와 그 적용 지식	
		*K-9 기록 전문직 관련 정책과 실무와 이러한 정책과 실무의 기관의 적용 사이의 관계	
전문적 지식	역사	핵심 업무	①기록물선별
	기록관의 속성	일반적 지식	*K-3 사회에서 기록관과 기록관리업무의 발달
	전문가 윤리강령	핵심 업무	⑦전문가의전문적/윤리적/법적책임
상황적 지식	배경적/기술적 지식	일반적 지식	*K-1 기록물과 기록물 관리의 특성 및 발전에 있어서 사회·문화·경제·정치·기술 요소의 영향
			*K-5 기록물의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특성과 이에 따른 기록물의 평가, 수집, 보존과 이용
			*K-10 핵심기록관리기능(선정, 평가, 수집, 정리와 기술, 정보서비스와 접근, 홍보)의 상호관계와 기록물 관리에 끼친 영향
			*K-11 서로 다른 기록관리업무 환경과 특수한 기관 내에서 기록관리업무의 위치
학제적 지식	관련 타분야 지식	일반적 지식	*K-13 컴퓨터 기술이 가져온 기록관리 이론, 방법론, 실무의 변화
			*K-12 기록관리학과 관련 학문 분야의 이론, 방법론, 실무에서의 연관성과 차별성, 상호교류 가능성

*K는 필수일반지식으로 총 13개로 구성됨.

3. 국내 기록 전문직 양성 현황

3.1 국내 양성 프로그램

3.1.1 일반 현황

우리나라는 주로 대학원과 교육원에서 기록

전문직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원 프로그램은 1999년 목포대를 시작으로 일반대학원과 특수전문대학원에 설치되어 현재 2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단기 과정으로는 행정자치부 인가를 받은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이 있다. 일반대학원으로는 학과간 협동과정인 13개, 학과내

세부 전공 과정이 4개, 특수·전문대학원이 4개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3.1.2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은 대부분 사학과 또는 행정학과 문헌정보학과의 학과간 협동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세대, 원광대, 한성대, 이화여대는 학과 내 과정으로 이루어져있고 이화여대는 박사과정만 있다. 박사과정이 개설된 대학은 8개

대학으로 경북대, 부산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이다. 일반적으로 석사과정은 4학기에 걸쳐 학점은 3학점씩 졸업학점은 최소 24학점 이수, 논문 제출은 필수요건으로 이루어진다. 개설 교과목의 수는 학교에 따라 차이가 매우 컸으며 전임교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2> 국내 기록 전문직 양성 기관 유형 및 대학 소속 현황

유형	대학명	설치년도	소속 및 명칭	
일반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경남대	2000	인문사회계열 인문학과 기록관리학 협동과정
		경북대	2005	협동과정 기록학과
		목포대	1999	기록관리학 협동과정
		부산대	2000	인문사회계열 기록관리학 협동과정
		서울대	2001	인문대학 협동과정 기록관리학 전공
		신라대	2006	기록관리학과
		전남대	2010	협동과정 기록관리학과
		중앙대	2006	협동과정 기록관리학과
		충남대	2000	기록보존학 협동과정
		한국외국어대	2001	인문대학원 정보 기록학과
		한남대	2000	인문사회계 기록관리학과
		한신대	2007	학과간 협동과정 기록관리학
		한양대	2007	학과간 협동과정 기록관리학
		학과내 전공	연세대	2008
	원광대		2000	사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이화여대		2006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박사과정)
한성대	2008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특수·전문 대학원	명지대	2000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 전공(전문대학원으로 이전)	
		2007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 전공	
	이화여대	2002	정책과학대학원 정책학과 기록관리 전공	
	전북대	2004	정보과학대학원 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교육원	명지대	1999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표 3〉 일반대학원의 기록 전문직 양성 프로그램 운영 현황

유형	대학명	소속/운영학과	박사과정	학사운영	
학과간 협동 과정	경남대	사학, 행정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 4학기 ● 졸업학점: 24학점 ● 학점: 3학점 ● 논문: 필수 	
	경북대	사학, 문헌정보학	○		
	목포대	사학, 행정학			
	부산대		사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법학		○
			사회학, 신문방송학, 역사교육학		
	서울대		사학, 행정학, 법학, 교육학, 컴퓨터공학		
			역사교육학, 국어국문학		
	신라대	사학, 문헌정보학, 역사교육학			
	전남대	문헌정보학, 사학, 행정학	○		
	중앙대	사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		
	충남대	사학, 문헌정보학			
	한국의국어대	사학, 행정학, 법학, 정치학, 철학	○		
한신대	사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학				
한양대	사학, 컴퓨터공학, 법학, 행정학				
한남대	사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학과내 전공	연세대	문헌정보학	○		
	원광대	사학	○		
	이화여대	문헌정보학	○		
	한성대	문헌정보학			

3.1.3 특수·전문대학원
기록관리학 전공이 설치된 특수·전문대학원은 총 4개로 명지대, 이화여대, 전북대, 중부대가 있다. 특수대학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21조」에 의거하여 직업인이나 일반 성인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학생들 중 직장인의 비율이 높고, 강좌가 주로 야간에 개설되어 있다. 대부분 5학기로 이루어지며, 학점

은 2~3학점으로 졸업학점은 24~27학점이며, 논문은 선택사항으로 학사규정에 의거하여 추가 6학점 이수를 하면 논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2007년에 시작한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인 명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헌정보학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특수·전문대학원 기록 전문직 양성 프로그램 운영 현황

대학명	소속/운영학과	학사운영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 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 5학기 ● 학점: 2~3학점 ● 졸업학점: 24~27학점 ● 논문: 선택사항 ● 학점대체가능(졸업학점에 6학점 추가 이수)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정책과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전북대	정보과학대학원 정보과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중부대	인문산업대학원 기록물관리학과	

3.1.4 교육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하여 1999년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로 설치된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이 있다. 명지대학교와 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공동으로 부설하였으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관장에게 매 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대상자는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과정의 이수 학점과 동일한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래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교육과정은 1년 과정으로 24학점 이수를 해야 하며 현장 실습이 필수이다.

3.1.5 종합

국내 총 21개 대학원과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운영실태의 측면에서 대부분 전임교원의 충원이 필수가 아닌 협동과정이나 특수대학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한성대만이 학부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 재학생 규모에 있어서 재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입학이 다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임 교원의 부족으로 인해 현장 전문가의 참여가 높아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사의 절반 정도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록관리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교육시설도 전용 실습실이 매우 부족하여 실무적인 내용이나 활용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국내 양성 교육과정

국내 기록 전문직 양성 기관 중에서 홈페이지에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과목명을 분석하였다. 일반대학원 10개(경북대, 목포대, 부산대, 서울대, 신라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남대, 한성대, 한양대)와 전문대학원 4개(명지대, 이화여대, 전북대, 중부대),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분석내용은 기록관리학의 각 지식 범주를 교과목에서 충분히 수용하였는지? 범주 및 세부 영역별로 개설된 교과목들의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디지털 환경과 관련하여 기록관리학에 새롭게 개설된 교과목은 무엇인지? 정연경(2005)의 연구에서 다루었던 교육과정과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2.1 일반

교과목수는 가장 적게는 한국기록관리교육원의 16개에서 명지대의 46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교과목수가 분포되었다. 특히 박사과정 개설 대학원의 경우, 석사와 박사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교과목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교과목수의 단순한 비교는 크게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과목을 설정해 놓고 실제로 매 학기마다 개설하는 과목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과목으로 설정해 놓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교과목이 교과과정상 필요한 것임을 암시하는 의미로 분석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교과목의 구분이 대학교마다 상이하였는데, 예를 들면 목포대는 공통/전공/연구/보충지정으로 부산대는 공통기초/전공/논문연구, 신라대

는 공통필수/전공, 중앙대는 공통/선택/전공연구 등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대학교마다 핵심 지식과 보충 지식으로 생각하는 교과목도 상당히 달라서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의 경우, 목포대는 핵심지식, 서울대는 보충지식으로 설정하여 기록관리학 지식 범주를 나누는데 있어서도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3.2.2 기본지식범주

기본지식범주에 해당하는 '기록관리학개론' '기록관리학입문' 등의 교과목은 모든 양성 기관에서 1개 이상의 교과목을 설정하고 있었다. 일부 대학원은 학부 교과목으로 '기록관리학의 이해'를 개설하고 필요한 경우, 학부 보충 과목으로 수강하도록 되어있었다.

3.2.3 핵심지식범주

핵심지식범주 아래 개설된 교과목의 수는 차이가 컸으나 핵심지식범주에 해당하는 과목은 대체로 유사하였다. 세부 영역으로는 기록물의 평가와 수집, 기록물의 정리와 기술, 기록정보 서비스, 기록물 보존과 역사, 기록관 운영, 기록 관리의 역사, 기록관련 법과 제도, 기록관리 전산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세부 지식 영역당 1개 이상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었고, 특히 전자기록물과 관련하여 전자기록관리나 전산화 관련 과목을 적게는 1개부터 많게는 7개까지 설정하고 있었다. 기록관리의 역사와 기록관련 법과 제도는 서양과 동양, 한국과 외국 등으로 세분시켜 개설한 곳이 많았다. 그러나 기록관리 전문직 윤리에 관한 독립 교과목은 한성대에만 따로 설정하고 있었다.

3.2.4 보충지식범주

기록관리의 학제적 특성을 보여주는 보충지식범주에 해당하는 교과목으로는 행정조직이나 체계, 한국근현대사, 한국지방사, 행정법, 정보관리시스템, 정보정책, 데이터베이스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타 분야 교과목이 기록관리 전공으로 많이 개설되고 있었는데, 목포대의 경우, 행정관리론을 핵심지식으로 간주하여 핵심지식과 보충지식간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웠다. 이는 양성기관이 기록 관리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충지식에 해당하는 교과목들은 개별 대학원의 운영 주체와 학과의 성격이 반영되어 기관마다 차이가 컸고 대체로 사학, 행정학, 컴퓨터 관련 교과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5 실무지식범주

대부분의 양성기관에서 실무 관련 교과목을 필수로 개설하고 있었다. 주로 '기록관리실습'이란 교과목명으로 개설되고 있었는데, 실습이 운영되는 방식은 기관마다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 대상 기관은 상당히 많았지만, 실제로 실습을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은 많지 않아서 외국처럼 충분한 실습을 받기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다.

3.2.6 연구지식범주

연구지식범주는 '논문연구', '논문지도', '논문작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으며, 일반대학원의 경우는 석사학위 논문 작성 준비 교과목으로 활용되고, 특수대학원의 경우, 논문을 쓰지 않고 6학점 추가 이수료 연구를 대신하여 졸업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관별로 1~4개에 연구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였으며 '-연구'나 '-특강', '-세미나' 등의 교과목이 전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원마다 특성이 다르고 교과목 내용이나 운영 방식이 강의, 토론, 발표 등에 초점을 맞춰서 특정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외국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2.7 교과목 변경

정연경(2005)의 한국의 기록관리 교과과정 연구에서 제공된 11개 대학원의 교과목과 본 연구에서 분석된 15개 대학원의 교과목을 비교하여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6개 대학원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새롭게 추가 개설된 교과목은 '추가'로, 교과목명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으로, 교과목이 여러 개로 세분된 경우는 '세분'으로, 여러 교과목이 하나로 통합된 경우는 '통합'으로 기재하였다.

일반대학원에서 목포대의 호남문화론은 그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는 내용을 다루는 특성화된 과목이었다. 부산대는 기존의 과목을 좀 더 전문적으로 세분화시켜 독립된 교과목으로 만들고 교과목 명칭을 새롭게 바꾼 부분이 많았다. 서울대는 교과목의 통합, 세분화, 교과목 명칭의 변경, 연구 지식의 강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법적, 조직적 맥락에서 기록물 관리 능력의 함양을 추구하였다. 한남대는 고문서 세미나, 기록관경영론, 기록관리법제연구, 현용기록관리론이 추가되었다. 명지대는 총 30

개의 교과목이 늘어났으며 상당히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매체별, 영역별 세분이 이루어진 과목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전문대학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기록관리 일반이나 핵심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결과이다. 반면에 이화여대는 교과목의 수가 12 과목이 줄어들고 8과목이 추가되었으며 삭제된 교과목들은 대부분 문헌정보학적 특성을 강하게 띠고 있었던 과목들로 이는 정책과학대학원 소속으로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기록관리 교육의 특성에 중점을 두고 교과과정이 개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2.8 종합

15개 양성기관의 교과과정을 5개의 지식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기록관리학의 5개 지식 범주에서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교과목이 기록관리학개론, 기록의 평가와 수집, 한국고문서연구, 기록정보조직론, 기록정보서비스론, 기록보존, 전문기관의 기록관리, 색인 및 검색, 기록관리실습, 논문연구 등이었다. 예전에 비해 전자 정보나 정보기술 관련 교과목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역사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관련 교과목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기록관리 전임 교원 채용이 매우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대학원 석사과정의 졸업 이수학점이 24학점인 것에 비해 기록관리학의 지식범주별로 다루어야 할 교과목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기록 전문직 양성기관의 교과과정

지식범주	세부지식영역	교과목명
1. 기본지식	1-1 기록물특성/기록관리학이론, 원칙, 방법	기록관리학개론, 기록관리학입문 등
	2-1 기록물 선정, 평가, 수집	기록물평가, 기록 평가와 수집 등 1~2개 개설
	2-2 기록물 정리와 기술	기록물정리, 기록물기술, 기록조직 등 1~2개 개설
	2-3 기록물 정보 공개 열람 서비스와 홍보	기록정보봉사, 기록정보서비스, 기록공개 등 1개 개설
	2-4 기록물 보존과 보호	기록보존, 기록보존과 복구 등 1~2개 개설
2. 핵심지식	2-5 기록 관리프로그램 운영	기록관 운영 등 1개 개설
	2-6 기록관리의 역사	기록관리역사, 기록사료연구 등 1~2개 개설되었고, 서양/동양, 한국/외국 등으로 세분시켜 개설하기도 함
	2-7 기록관리 전문직 윤리	기록관리전문직, 기록관리윤리 등으로 개설되는데 독립 교과목은 드물었음
	2-8 기록환경	세계기록관리제도, 기록관련법연구 등 기록관리 제도 및 법령을 중심으로 1~2개 과목이 기관에 따라 서양/동양, 한국/외국 등으로 세분시켜 개설함
	2-9 컴퓨터 기술의 적용	기록관리전산화, 전자레코드관리 등 기관에 따라 1개~7개 까지 개설됨
3. 보충지식	3-1 관련 전문직과 학문분야	공공역사학, 정보의 이해, 행정조직론, 분석서지, 역사서지, 동서양문화사 등
	3-2 관련 연구방법론	구술사연구 등
4. 실무지식	4-1 인턴십 등을 통한 일정 기간의 현장경험	기록관리실습/연습, 개별교과목실습 등
5. 연구지식	5-1 학위논문, 학술논문, 포트폴리오 등 작성	논문연구, 논문지도, 기록관리세미나 등

4. 국외 기록 전문직 양성 사례

국외 기록 전문직 양성 기관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참조).

4.1 미국

미국의 기록관리교육은 1947년 American University에서 Ernest Posner가 최초의 기록 관리 교과목을 가르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SAA에서 1977년에 대학원 교육지침서를 개

발하고 교육의 필수요건을 제시하였다. 대학원의 다양한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기록관리 세부 전공을 archival studies,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archives & record administration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UCLA, Simmons College, University of Michigan에서는 3~5명의 전임교원을 두고 있으나 나머지 대학은 대부분 1명의 전임 교원을 두고 있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퇴임 교수가 늘어날 예정인데, 새로운 전임교원의 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4.2 캐나다

캐나다의 기록관리교육은 1981년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UBC)의 기록관리학 석사과정부터 시작되었다. 1975년에 ACA가 캐나다 기록관리학 교육에 관한 지침서를 개발하였으나 협회의 인증제도는 없다. 현재 영어권 캐나다의 5개 대학, Dalhousé University, UBC, University of Manitoba, University of Toronto, McGill University에서 기록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불어권 지역에서는 Université de Montréal과 Université Québec에서 실시하고 있다. UBC는 기록관리학의 독립된 석사학위,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캐나다 기록관리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다. 전임교원의 대부분이 아키비스트 실무 경력자로 최근 임용된 전임 교원의 경우만 기록관리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4.3 영국

영국의 기록관리교육은 1947년 University College London과 University of Liverpool에서 시작되었다. 석사/Diploma(석사수료)/자격증 과정으로 운영되며, 전문협회 가입은 Diploma를 취득하고 전문요원 자격이 있어야 가능하다. 1984년부터 Society of Archivists(SA)의 인증제도에 따라 평가받고 있으며, 7개의 대학원 중 6개의 대학원만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교육과정은 석사/Diploma(석사수료)/자격증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수진은 기록관리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보다는 기록관리 현장경험이 많은 다른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많았다.

4.4 호주

호주의 기록관리교육은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Edith Cowan University, Monash University,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에서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매체정보대학원, 컴퓨터정보대학원, 정보기술대학원, 경영정보기술대학원에서 기록관리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서비스 석사, 정보관리 석사, 정보시스템 석사에서 세부 전공으로 기록관리학을 석사/석사수료/자격증 과정으로 제공한다. 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s(ACA)와 Records Management Association of Australia(RMAA)에서 기록관리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대학원은 모두 두 협회의 인증을 받았다. 석사과정은 석사학위 논문 이외에 연구프로젝트, 연구방법론 등 정해진 교과목 이수로 대체가 가능하다.

5. 기록 전문직 양성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

제일 먼저 기록 전문직을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개발해 줄 수 있는 대학원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학부 과정에서 기록관리 관련된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는 기록 전문직의 소양을 갖추기에 매우 역부족이다. 고도의 숙련된 전문가 집단을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탄탄한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원 과정을 통해 기록 전문직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학부의 주제 배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과

목을 수강함으로써 기록관리 관련 지식을 심화시킬 수 있고, 논문 작성을 통해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며, 체계적이고 장기간 동안의 실습 및 적용 훈련을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학문의 참여와 시도를 통한 다학문적 교과목이 개발·확대 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도 기록관리학과 협동과정에 참여한 전공(행정학, 사학, 문헌정보학, 컴퓨터학) 지식이 결합된 다학문적 교과목이 점차 보충지식과 핵심지식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록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기록물을 표현하고 조직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기록물의 보존 기술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문과의 결합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관리학 교육 방향은 정보기술의 측면이 강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과정 내에서 정보기술과 관련된 교과목을 늘리고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 기록 전문직 양성 프로그램은 핵심지식으로 역사적, 제도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학문적 교과목의 개설 수도 대학원마다 편차가 커서 대학원 자체적으로 정보기술 관련 교과목을 늘리고, 다학문적인 교과목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이 시야와 사고의 폭을 넓히고 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 학문영역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핵심지식 범주의 균형 잡힌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핵심지식은 전문직 정체성을 구성하는 구심점이므로 기록 전문직의 기본 소양을 쌓는데 필수적인 교과목은 기관에 공통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특히, 기록 관리 전문직 윤리에 관한 교과목 개설이 시급하며 기록관 경영이나 분야별 기록물 관리에 관한 교과

목도 보강해야 한다. 정보공개도 기록관리 분야에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주제이나 기록정보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독립 교과목으로 개설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기술, 기록물 관련 메타데이터, 디지털, 아카이빙 등 향후 기록관리학의 연구 방향을 교과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넷째, 이수 학점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외국의 대학원 36~48학점이 이수학점인데 비해 한국은 24학점에 불과하여 기록관리 전반에 관한 교과목을 듣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록관리학 졸업 이수학점을 최소한 30학점으로 상향 조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 대학원 졸업 이수학과 함께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풍부한 기록관련 실무 경험과 기록관리학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 교원의 충원이 필요하다. 기록관리학 전임 교수가 1~2명에 불과한 경우, 깊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Cox & Larson 2008). 그러므로 학과간협동과정을 통해 각 전공에 소속된 교수가 기록관리학 강의를 병행하기 보다는 기록관리학 전임 교원을 1명이라도 확실히 채용해서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기록 전문직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실무와 연구 지식범주의 교과목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에게 미래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강의에서 전달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직 교육은 실제 업무에 초점을 맞추는 '역량 기반 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실무 관련 교과목은 전체 교과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이론적 지식 및 연구 능력과 결합되어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습 교과목을 별도로 각각 구성할 수도 있겠으나 이론과 연구,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교과목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대학원과 유관 기관의 협정을 통한 인턴십 또는 실습 프로그램을 방학 동안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교과 수업을 통한 충분한 실습도 경험해 본 후,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습 담당 기관의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되며, 실무 기록관리 담당자들과 교과과정 공동 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함께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 개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기록관리학 교육의 일관성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한다. SAA(2002)에 따르면 기록관리 핵심지식은 반드시 일관성 있는 교과과정에 기반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내 대부분의 대학원이 학과 간 협동과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학과에 따라 대학원 교과과정의 특성이 차이가 나고 대학원마다 공통이나 필수, 보충과목에 개설되는 교과목들이 다르게 설정되고 있다. 특성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핵심지식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통일시켜 기록 전문직의 기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졸업생들의 기본 소양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형 기록 전문직 양성 프로그램의 표준화된 지침 개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기록관리 양성 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표준 지침서의 개발과 인증제 검토가 시급하다. 그리고 직무 분석과 교육과정 평가를 통해 기록관리교육의 표준화와 특성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여덟째, 기록 전문직 양성 교육기관, 기록관리 전문 학·협회, 기록 관련 기관 간의 공고한 파트너십 형성과 활발한 의견 교환이 필수적이다. 국내에도 2010년 기록관리 분야의 교육과 연구, 교류협력, 기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직업윤리 신장을 목적으로 기록전문가협회가 설립될 예정이다. 기록관리교육의 중심 방향과 공통 기준은 한국 기록 전문직 양성 교육의 성장을 확고히 할 수 있으므로 기록의 전문성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이 전문직 교육의 골격을 구축하는데 잠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며 전문성 증진에 앞장서야만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역사적 재산으로 기록물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려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 모든 요소가 충족된다면, 기록 전문직의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이 정립되고 그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한국에서 기록관리학이 공식적인 대학원 과정으로 자리 잡게 된 기간은 10년 정도에 불과하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록관리직군이 신설되어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충원되기 시작했고 기록 전문직 양성 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록 전문직이 전문직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선행 사항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일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 즉 기록관리 핵심 역량 및 기술의 습득과 함께 실천을 통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록 전문직의 지식 범주에 관해 외국의 지침서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국내 기록 전문직 양성 프로그램과 교과과정을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국외 기록 전문직의 양성 사례를 4개국을 중심으로 짚어본 후, 기록 전문직 양성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SAA와 ACA의 지식 범주를 모두 정리하면, 총체적으로 5개의 범주인 기본지식, 핵심지식, 보충지식, 실무지식, 연구지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내 기록 전문직 양성 프로그램은 주로 일반대학원과 특수전문대학원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일반대학원으로는 학과간 협동과정이 13개, 학과내 세부 전공 과정이 4개, 특수·전문대학원이 4개가 있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인가를 받은 단기과정의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이 있었다. 교과목수는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의 16개에서 명지대의 46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교과목수가 분포되었다. 특히 박사과정 개설 대학원의 경우, 석사와 박사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교과목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교과목의 구분이 대학교마다 상이하였고 대학원마다 핵심 지식과 보충 지식으로 생각하는 교과목도 상당히 달라서 기록관리학 지식 범주를 나누는데 있어서도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5개 지식 범주에서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교과목은 기록관리학개론, 기록의 평가와 수집, 한국고문서연구, 기록정보조직론, 기록정보서비스론, 기록보존, 전문기관의 기록관리, 색인 및 검색, 기록관리실습, 논문연구 등이었다. 또한 대학원 석사과정의 기록관리학 졸업 이수학점이 24학점인 것에 비해 기록관리학의 지식범주별로 다루어야 할 교과목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교과과정의 변경이 많이 이루어진 6개 대학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행정학과 역사학 과목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과목을 좀 더 전문적으로 세분화시켜 독립된 교과목으로 만들고 과목을 통폐합시키고 기존의 교과목 명칭을 새롭게 바꾼 부분이 많았다. 외국의 기록관리 양성 교육은 현용기록과 보존기록의 통합, 정보기술 및 컴퓨터의 결합 강화, 정보기술, 전자기록관리, 디지털 보존, 기록정보서비스 기록관리 실무 경험에 강조를 두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록 전문직 양성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성을 개발해 줄 수 있는 대학원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학문의 참여와 시도를 통한 다학문적 교과목이 개발되고 확대 되어야 한다. 셋째, 기록관리지식의 각 범주가 균형 잡힌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넷째, 이수 학점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다섯째, 풍부한 기록 관련 실무 경험과 기록관리학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 교원의 충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실무지식범주의 교과목을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기록관리학 교육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표준교과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덟째, 기록 전문직 양성 교육기관, 기록관리전문 학·협회, 기록 관련 기관 간의 공고한 파트너십 형성과 활발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기록 전문직에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문협회나 단체에 가입하여 그들의 전문성을 확고히 하고, 변화하는 기록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계속 교육 기회의 제공과 참여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기록 전문직 양성 과정에 대한 연구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석. 1999. 기록과학과 기록관리전문가: 책
임과 사명 및 양성. 『한국국가기록연구
원 창립기념 심포지엄』, 55-78.
- 김상호. 1998. “한국기록보존사서 교육 프로그램
의 개발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28: 39-59.
- 김순희. 2009. “캐나다의 기록학 대학원 교육프
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
보학회지』, 40(3): 271-293.
- 김영애. 2000. “독일의 아키비스트 양성제도.” 『기
록학연구』, 2(2): 95-130.
- 김용원. 2001. “기록관리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
정연구: 駿河臺대학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 69-94.
- 김익한. 2003. “전문요원제도와 기록관리교육의
질적 제고.” 『기록학연구』, 5(1): 129-148.
- 김정하. 2001.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례 연구: 이탈리아의 기록관리학
전통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기
록관리학회지』, 1(1): 201-230.
- 김태수. 1999. “기록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정 연구.” 『한국기록보존협회 제1회 워크
숍 자료집』, 43-63.
- 이상민. 1998. “기록관리학과 아키비스트 교육
훈련제도.” 『기록보존』, 11: 109-141.
- 이승희. 2000. “중국의 아키비스트 양성제도: 중
국인민대학 당안학원을 중심으로.” 『기
록학연구』, 1(1): 189-217.
- 정연경. 2002a. “캐나다의 기록학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33(4): 37-59.
- _____. 2002b. “미국문헌정보학 대학원의 기
록관리학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36(4): 101-122.
- _____. 2003a. “기록학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비교 분석: 한국과 북미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1): 81-100.
- _____. 2003b. “미국의 기록관리학 지식 범주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2):
33-50.
- _____. 2005. “한국과 미국의 대학원 기록관리
학 교과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기
록관리학회지』, 5(2): 5-25.
- 최정태. 2000. “기록관리학, 그 교육의 향방: 신
설 9개 대학원 교과과정을 보면서” 『기
록학연구』, 2(1): 169-193.
- 최정태, 윤송원. 2001. “기록관리학 정립과 기록
전문가 양성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기
록관리학회지』, 1(1): 95-129.
- 한복희. 1994. “기록보존학 연구의 개선방향:
기록보존소에 관한 계속교육의 프로그램
을 중심으로.” 『기록보존』, 7: 7-35.
- Academy of Certified Archivists. 2009. *Hand-
book For Archival Certification* [online].
[cited 2010. 5. 15].
<<http://www.certifiedarchivists.org>>.
- Cook, Sharon Anne. 1997. “Connecting archives
and the classroom,” *Archivaria*, 44:
102-117.
- Couture, Carol. 1996. “Today’s students, to-

- morrow's archivists: present-day focus and development as determinants of archival scie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Archivaria*, 42: 95-104.
- Cox, Richard J. 1988. "Educating archivists: speculations 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JASIS*, 39(5): 340-343.
- Cox, Richard J., Elizabeth Yakel, and David Wallace. 2001. "Archival education in North Americ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chool." *Library Quarterly*, 71: 141-194.
- Cox, Richard J. and Ronald L. Larson. 2008. "iSchools and archival studies." *Archival Science*, 8(4): 307-326.
- Craig, Barbara Lazenby. 1996. "Serving the truth: the importance of fostering archives research in education programmes, including a modest proposal for partnerships with the workplace." *Archivaria*, 42: 105-117.
- Ericson, Timothy L. 1993. "Abolish the recent: the progress of archival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 25-37.
- Eastwood, Terry. 1983. "The origins and aims of the master of archival studies programme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Archivaria*, 16: 35-52.
- _____. 2000. "Archiv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experience," *American Archivist*, 63: 243-257.
- Gilliand-Swetland, Anne J. 2000. "Archival research: a 'new' issue for graduate education," *American Archivist*, 63: 258-270.
- Jimerson, Randall C. 2001. "Graduate archival education at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OCLC Systems & Services*, 17:157-165.
- Klumpenhouwer, Richard. 1995. "The MAS and after: transubstantiating theory and practice into an archival culture," *Archivaria*, 39: 88-95.
- Nesmith, Tom. 2007. "What is an archival education?"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8(1): 1-17.
- Pemberton, J. Michael and Christine R. Nugent. 1995. "Information studies: emerging fields, convergent curriculum."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 126-138.
- Schaeffer, Roy. 1994. "From graft to profession: the evolution of archival education and theory in North America," *Archivaria*, 37: 21-34.
-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2. *Guidelines for a Graduate Program in Archival Studies* [online]. [cited 2010. 5. 15]. <http://www.archivists.org/prof-education/ed_guidelines.asp>.
- Wosh, Peter J. 2000. "Research and reality checks: change and continuity in NYU's archival management program," *American Archivist*, 63: 271-283.